

상생금융 동참 손보사 '속얇이' 적자 우려에도 車 보험료 인하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 인하 결정
인하 폭 줄여 0.8~1%가량 내릴듯

삼성화재, 車보험 손익 66% 급감
대형 4개사, 누적 손해율 83.3%

올해 손해보험사들이 '상생금융'에 동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손해율 상승 등으로 차보험손익이 적자를 향해 가고 있어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올해 차보험료를 0.8~1%가량 인하한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되는 셈이다.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등 대형 3개 손보사가 앞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발표했다. 메리츠화재와 삼성화재는 각각 1%씩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다. DB손해보험은 0.8% 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다른 손보사들도 보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하폭은 0.5~1%

가량으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 2022년부터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2022년 1.2~1.4% ▲2023년 2~2.5% ▲2024년 2.5~3% 인하됐다. 올해는 인하폭이 줄었지만 금융당국의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4년 연속 보험료를 내리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므로 상생금융 차원의 성격에 제일 적합하다"며 "다만 차보험손익이 거의 남지 않아 작년에 비해 인하폭이 줄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재 자동차보험 업황이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 손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 이상 줄어들었거나 심각한 경우 적자전환을 기록하기도 했다.

업계 1위 삼성화재의 지난 3분기 차보험손익은 140억원으로 전년 420억원 대비 66% 감소했다. DB손해보험의 차보험손익은 160억원으로 전년 830억원 대비 81% 급감했다. KB손해보험은 지난 3분기 차보험손익으로 2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차보험 손해율도 3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4개 손보사의 지난 한 해 누적손해율은 평균 83.3%로 집계됐다. 전년 79.8% 대비 3.5%p 상승한 수치다. 통상 업계에서 보는 적정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업황 악화에 따라 당초 업계에서는 차보험료 인하가 아닌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컸다. 다만 올해 역시 상생금융 기조에 따라 손보사들은 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차보험손익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 고객에게 1% 보험료 인하는 미미한 수준이겠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차보험에서 이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차보험료를 인하하게 된다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인하에 따라 올해 다시 차보험손익이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래미안 원페를라' 특공 경쟁률 83대 1

올해 첫 로또 청약... 1.8만명 몰려

올해 첫 '로또 청약'으로 꼽히는 '래미안 원페를라'의 특별공급 청약에 1만 8000명 가까이 몰렸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래미안 원페를라의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83대 1로 집계됐다. 214세대 모집에 1만 7832명이 접수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각각 8083명, 6611명이 청약을 신청했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8-14 일대에 방배 6구역을 재건축해 들어서는 단지다. 지상 최고 22층, 총 16개 동으로 1097세대 규모다.

일반분양 물량은 482세대다. 전용면적 별로는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가 265세대로 가장 많고 ▲59㎡ 157세대 ▲106㎡ 56세대 ▲120㎡ 4세대 등이다.

단지는 지하철은 7호선 내방역과 4·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서초대로와 서리폴터널 등을 통해 강남에 접근하기 좋다.

방배초와 방일초, 서래초, 방배중, 이수중, 서문여중·고, 경문고 등이 모두 반경 1km 이내에 위치해 있다. 신세계 백화점과 서울성모병원 등 생활인프라도 갖춰져 있으며, 서리폴공원과 몽마르뜨공원, 반포천 등도 가깝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분양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818-14번지 일대 래미안 원페를라 현장. /안상미 기자

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 평형별 최고가를 기준으로 59㎡가 17억9650만원, 84㎡가 24억5070만원이다. 106㎡와 120㎡는 각각 29억9780만원, 31억8400만원이다.

인근에서 2021년 입주한 '방배그랑자이'의 경우 전용 54㎡와 84㎡가 지난 달 각각 20억2000만원, 29억7500만원에 거래됐다. 방배 5구역을 재건축하고 있는 '디에이치 방배'의 입주권은 전용 59㎡가 18억8155만원, 101㎡가 33억9386만원에 거래됐다.

래미안 원페를라는 투기과열지구에 청약과열지역이다. 주변 구축의 시세가 낮아 거주 의무기간은 없지만 3년간 전매가 제한되며, 청약 재당첨제한은 10년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더샵마스터뷰' 예상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두산건설이 제안한 '더제니스' 투시도.

/두산건설

포스코 vs 두산... '성남 은행주공' 수주전

포스코이앤씨 '더샵마스터뷰' 조합 사업비 2400억 무이자 조달
두산건설 '더제니스' 회사 이윤을 조합 이익으로 환원

경기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 수주 경쟁이 치열하다. 오는 16일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포스코이앤씨와 두산건설이 맞붙었다.

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양사의 수주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각사가 강점을 강조하며 물밑 경쟁이 뜨겁다. 은행주공은 지하 6층~지상 30층, 39개동, 총 3198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 포스코이앤씨, 특화설계 적용

포스코이앤씨는 3.3㎡(평)당 공사비로 698만원을 제안했다. 기존 계약이 해지된 시공사가 제시한 715만원보다 낮다. 조합 사업비의 한도를 8900억원으로 설정하고 그 중 24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해 조합의 재정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발코니 옵션 수익과 철거 부산물 판매 수익도 조합에 귀속된다. 조합에 주어진 구조심의 및 굴토심의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와 비용까지 지원한다. 공사비 검증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815장의 입찰내역서와 419장의 특화 설계도면을 제출했다.

단지명은 '더샵마스터뷰'다. 조망형 이중창 등에 수입산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고 단지 내 단차를 활용한 완만한 경사로 '그랜드슬롭(GRAND SLOPE)'과 같은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원 분담금을 줄이기 위한 금융 솔루션과 경관의 가치를 더하는 '그랜드슬롭'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다"며 "조합원들에게 단순한 주거 공간의 재정비를 넘어 지역사회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 두산건설, 공사비↓·공사기간↓

두산건설은 자사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더제니스(The Zenith)'를 제안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공사비로는 평당 635만원을 제시했다. 회사의 이윤을 조합의 이익으로 환원해 조합의 분담금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계약일로부터 2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실착공 이후 공사비를 고정해 공사비 상승에 대한 조합의 걱정을 덜 예정이다. 조합의 빠른 입주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변경 없이 사업을 추진해 공사 기간은 51개월로 제시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조합에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하기 위해 전사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The Zenith"를 바탕으로 고품격 주거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이 향후 수도권 정비사업 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가 선정될 경우 프리미엄 전략이 다시금 주목받으며 향후 수도권 재건축 시장에서도 '브랜드 고급화'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두산건설이 최종 시공사로 결정된다면 실속형 공사비 전략이 조합원들에게 여전히 매력적인 선택지라는 점이 확인될 전망이다.

오는 16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시공사가 결정될 예정이다.

/전지원 기자 jiw13@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연임 유력

남은 임기 2주... 하마평도 없어
연임 땀 2000년대 이후 최초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의 연임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3년 임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수면 위로 떠오른 차기 회장 도전자가 없기 때문이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 오회장의 임기가 종료된다. 오회장은 지난 2022년 3월 임기를 시작했다. 통상 저축은행중앙회는 회장 임기 종료 1~2개월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를 꾸린다. 그러나 아직 차기 회장 과 관련해서 하마평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까지 중앙회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사람도 없다. 탄핵정국 여파에 관료 출신조차 선불리 나서기 어려워진 탓이다. 그간 중앙회장은 현 회장인 오회장과 제17대 이수운 회장을 제외하면 모두 관료출신이었다.

민간 출신 또한 도전장을 내밀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고금리 여파에 저축은행업황이 크게 나빠지면서다. 아울러 현재 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및 M&A(인수합병) 활성화 등 숙원과제가 산적하다. 오회장이 업무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이다.

이처럼 소강상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오회장의 연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중앙회 정관상 중앙회장 연임에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다. 아울러 오회장의 경우 일선 저축은행의 단단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오회장의 역할이 요구된

다는 목소리다. 오회장은 앞서 아주저축은행과 아주캐피탈, 하나저축은행 등을 거치며 실적을 견인한 바 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앙회장은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이 유리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보수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업황에선 현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중앙회는 아직 선관위와 회추위 구성과 관련해서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 일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별도의 논의도 없었다. 사실상 오회장의 연임이 확실해졌다. 중앙회 정관에 따르면 차기 회장 선출이 미뤄지는 경우 현 회장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한다.

저축은행 업계에서도 임기연장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현업에 관한 이해도가 높을뿐더러 저축은행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어서다. 오화경 회장은 임기 동안 이전 회장 임금의 절반만 받았다. 그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을 활용해 전국 저축은행 79곳의 대표에게 업무 진행 과정을 공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오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2000년대 이후 첫 연임 회장이 된다. 마지막 중앙회장 연임 사례는 1980년대 제 5·6대 명동근 저축은행중앙회장이 마지막이었다. 아직 오회장은 연임과 관련해 별도의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가 이뤄지면 정관과 원칙에 따라 선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